



「한국건축사」 체계적 연구

윤장섭박사 가족

우리나라 건축학자로선 처음으로 '한국 建築史'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윤장섭박사는 2남2녀 10명의 가족 중 9명이 이공계 박사로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장남인 윤재신박사와 장녀 윤재옥박사 내외가 건축학을 전공하여 한 집안 4명이 건축학을 전공한 대가를 이루었다.

2남 2녀 10명의 가족중 9명이 이공계 박사 MIT서 전과목 A ... 서울대 종합캠퍼스설계

강남에 있는 한 일식집에 윤장섭박사 가족이 모처럼만에 한자리에 둘러 앉았다. 이날은 어버이날을 맞아 장녀 윤재옥박사와 차녀 윤재영박사 그리고 큰사위인 강철구씨, 작은 사위인 황병구박사가 아버지인 윤장섭박사와 어머니 신경

희여사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다.

다소 늦어진 윤장섭박사를 제외하고 두자녀 내외와 어머니가 먼저와 윤장섭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곱시가 조금 지나자 칠순을 넘겼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건강해보이는 윤장섭박사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윤박사가 들어오자 모두는 잠시 일어서서 예를 갖추고는 다시 앉아 식사를 주문했다. 식사가 준비되자 장녀 윤재옥박사의 감사기도를 시작으로 이날을 기념했다.

국회의사당 건립위원 활약

두 아들은 집이 가까워서 미리 집에 와서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다며 이야기의 꽃을 먼저 피운 윤장섭박사는 우리나라 건축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으로 이미 학계와 사회에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근대화에 앞장서고 후



▲ 장남 재신(윗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장녀 재옥(윗줄 왼쪽에서 세번째), 큰사위 강철구사장(윗줄 왼쪽에서 첫번째) 등 건축학의 대가를 이룬 윤장섭박사(가운데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가족의 단란한 모습

진 양성에 토대가 된 윤장섭박사는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를 계획했고 국회 의사당 건립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건축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분으로 그 후손들 또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과학명가로 손색이 없는 일가를 이루고 있다.

이대 약대를 졸업한 신경희여사 사이에 2녀2남을 둔 윤박사 가계(家系)는 2명의 사위와 2명의 며느리를 포함, 10명의 가족중에 심리학을 전공한 둘째 며느리를 제외한 9명 모두가 이공계에서 박사학위를 소유한 명가이다.

이중 장녀 재옥박사 내외와 장남인 재신박사가 아버지와 같은 건축을 전공하여 한 집안에 4명이나 건축계에 몸담고 있다.

윤장섭박사는 아는 길도 물어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완벽한 성품으로 MIT에서 공부할 때도 서울대학 강사가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망신이겠냐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공부해 모든 교과목의 성적이 A가 되었고 일반 청강생에서 정식 석사과정 학생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인정된 학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공부에 대한 열의를 이어받은 장녀 재옥씨도 원래는 연세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결혼후 두 자녀를 출산한 재옥씨는 건축공부가 하고 싶어 연세대 건축학과에 다시 편입하여 학사와 석사를 따고 동경대에서 포스트닥과정을 마쳤다. 재옥씨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남편 강철구씨의 외조뿐만 아니라 시아버님(강성규 호서대총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협조로 다시 건축학을 전공하여 현재 호서대 건축학과 교수로 있다.

그러나 이미 재옥씨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만들기 숙제로 학교모형을 제작하

다고 했을 정도로 건축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있었노라고 윤장섭박사는 딸 재옥씨의 건축에 대한 소질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

장녀내외도 건축학 전공

재옥씨는 건축학중에서도 건축환경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는데 서울대 풍동실험실에서 에너지와 바람에 따른 건축환경연구로 박사논문을 마쳤다. 박사논문이라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으로 지도교수가 많이 아는데 보통이지만 재옥씨의 논문은 오히려 본인보다도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관심은 대단했다고 한다.

큰 사위인 강철구씨는 현재 직원이 1백50명되는 <주>동우건축의 대표이사지만 역시 연대 건축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최근 건국대 건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업가인 강철구씨는 주로 대학 캠퍼스를 많이 설계했는데 우선 서울대 일부와 숙대, 한림대, 고대, 연대 원주캠퍼스, 호서대, 숙대, 서울여전 등 국내 대부분의 캠퍼스를 설계했다. 강철구씨는 장인인 윤장섭박사가 건축계에서는 너무도 잘 알려진 대기여서 <주>동우건설 대표라는 명함보다는 누구의 사위라는 입지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후광을 입었노라고 진한다. 늘 책을 가까이 하던 아버지와 식구들의 모습을 봐오던 재옥씨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저녁식사후 서재에서 책을 읽지 않고 곧바로 TV를 보는 남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지더라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를 전해 잠시 웃음이 이어졌다.

누나 재옥씨가 학사를 두과에서 받은 것처럼 장남인 재신씨는 세군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용산고등학교에

서 늘 평균 90점이 넘을 정도로 수재여서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큰 사위의 증언(큰 사위인 강철구씨와 윤재신박사는 용산고등학교 선후배사이)으로부터 자랑이 시작된 장남인 재신씨는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받고 정립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잠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장남도 MIT서 박사학위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전화인터뷰에 협조해 준 재신씨는 이후 로터리 장학금으로 영국에 있는 스트레트 클라이드(strath clyde)에서 컴퓨터 AIDED 빌딩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85년에서 87년까지 역시 국비장학금으로 MIT에서 design and housing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7년에서 95년까지 'design theory and methods in architecture'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평생을 학계에 몸을 담은 윤장섭박사와는 달리 한국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재직중인 재신씨는 한국주택문제 연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으며 또 연구환경은 어떤 지를 알고 싶고 또한, 윤박사가 연구한 주택문제에 관한 이론을 주택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소를 택했노라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건축에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왔으면 하는 윤장섭박사의 무언의 바람이 재신씨가 건축을 전공하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아버지는 교수로 재신씨는 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성적도 나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을 은근히 대견스럽게 여기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맹모삼천지교라.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번 이사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처럼 윤장섭박사 또한 그 당시 아버지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별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회동으로 이사를 가서 네남매 모두가 재동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항상 엄한 분으로 기억되는 윤장섭박사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TV 보는 것을 무척 싫어해 TV는 아예 다락방에다 두고 방학때 그것도 성적이 아주 우수했을 때만 조금씩 보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자라 다락방에서 TV를 꺼냈더니 그때는 이미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일화를 전한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TV를 아예 사지 말자고 하여 그나마 고장난 TV도 그때부터는 구경도 못해 봤다고 한다. 재신씨는 그때 당시 실제로 방학때 만이라도 TV를 보기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어린시절이 있었노라고 회상했다.

둘째 며느리만 심리학박사

재신씨의 부인 이경림여사는 이대 약대를 거쳐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TUFTS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에서 포스트닥을 했다. 차녀 윤재영박사는 여자는 무조건 가정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 선택한 것이 현재는 안산전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겸손히 전한다. 그러나 재영씨도 아버지의 소질을 이어받아 남편 황병구(고려대 농화학 교수)박사가 집필한 책의 삽화를 직접 그려서 넣을 정도로 그림솜씨가 수준급이라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황병구박사(둘째 사위)는 아내의 이런 재능은 건축은 어떤 공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예술적 감각이 뒷받침해 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윤장섭박사의 그런 재능을 재영씨가 가장 많이 이어받은 것 같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4남매중에서 제일 막내인 재욱씨는 자녀들중 유일한 60년대생으로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한 탓도 있어서인지 개성이 가장 강한 형으로 서울대에서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과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시건대에서 산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땀다고 한다. 현재는 한국통신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고 부인 최진영씨도 서울대에서 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땀고 하버드대에서 포스트닥을 했다.

윤장섭박사는 수학을 잘하였고 물리와 역사,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타고난 건축학자라는 평을 많이 듣지만 윤박사가 건축을 하게 된 동기는 사뭇 기대와는 다르다. 어려서 몸이 약했던 윤장섭박사는 건강해지기 위해 활동량이 다른 과에 비해 비교적 많았던 건축학과를 선택했지만 건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느낀 것은 50이 넘어서라고.

그러나 윤장섭박사는 타고난 끈기와 노력으로 미국 유학당시 4개월의 방학 중에는 특별히 계획된 시찰 여정에 따라 워싱턴DC,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디트로이트, 앤버머, 메디슨, 뉴헤이븐, 애틀랜타, 타스케기, 마이애미, 푸에르토리코 등의 미국 각 지방을 순방하며 각 대학교의 건축교육상황, 각 도시와 도시 계획 및 주택사업 활동을 시찰하며 저명한 건축가들과의 면담 및 견학 등으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MIT건축과 석사과정중에 뜻있

는 건축수업을 받았다는 윤장섭박사는 이곳에서 “우리 현대건축의 발전방향은 우리 문화적 유산 속에 깊숙이 뿌리를 가져야 하며 우리 자신의 현대적 건축 표현을 찾기 위해선 우선 건축 디자인의 원리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문화 유산의 장점과 담점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며, 좋은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계승해 나가는 방안을 추구해 나갔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살려 윤장섭박사는 「한국건축사」라는 꽤 비중있는 책을 펴내 건축계는 물론 일반 문화계, 역사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1974년에는 한국일보사 출판문화상 저작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윤박사는 「한국건축연구」, 「건축수기」, 「서양근대건축사」 등의 책을 출판하였고 건축계획과 설계, 한국건축사, 건축음향계획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새벽 4시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던 윤박사는 오후 8시30분쯤 잠을 자고 12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기도를 다녀온 후에 잠시 잠을 청한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했다. 이런 습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공부를 한창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습관은 윤장섭박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무척 건강하고 자세하나 흐트러짐없어 보이는 윤박사의 강인한 체력은 1974년부터 시작한 동네 테니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윤장섭박사 가족은 몇가지 담소를 더 나눈 뒤 5월24일 전체가족회의때 볼 것을 약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㉔